

# 공공의 계획역량을 끌어올리는 네덜란드 정주환경연구소

강빛나래  
델프트공과대학교 건축건조환경학부  
OTB건조환경 연구단,  
토지개발거버넌스 연구부 박사과정 연구원

네덜란드의 공간계획 및 정책, 도시건축 분야의 대표 연구소인 네덜란드 정주환경연구소(Planbureau voor de Leefomgeving: PBL)<sup>\*</sup>는 2008년 출범하였다. 기반시설환경부 산하로, 정주환경과 공간계획 분야에서 다른 대학 단위 연구소가 하지 않는 광범위한 기초연구를 일상적으로 수행한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연구사업과는 차별되게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과 대응에 관해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는 PBL의 연구는 상·하원 논의 중 인용된 횟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 역할을 특별히 하고 있다.



PBL 전체 임직원

자료: PBL 2015년 연차보고서([http://www.pbl.nl/sites/default/files/cms/publicaties/20160721%20-%20PBL%20Jaarverslag%202015\\_def.pdf](http://www.pbl.nl/sites/default/files/cms/publicaties/20160721%20-%20PBL%20Jaarverslag%202015_def.pdf))

“네덜란드의 공간계획  
연구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크다. 네덜란드  
정주환경연구소는  
환경과 자연, 공간계획  
분야에서 정부의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 들어가며

툴립과 풍차, 나막신의 나라로 유명한 네덜란드는 ‘계획가의 천국(The planners’ paradise)’으로도 불린다(Faludi and Van Der Valk, 1994). 다핵화된 도시지역 체계, 정돈된 농촌 경관,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룬 활기찬 도심, 다양한 건축문화, 대중교통은 물론 자전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연결된 이동체계, 서로 다른 소득계 층이 한 동네에 살도록 설계된 주거단지, 야외 레저활동을 하기 좋은 공원과 녹지 등 어디든 주의 깊은 설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신이 지구를 만들었다면,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이 만들었다(God schiep de aarde, maar de Nederlanders schiepen Nederland)”는 속담이 암시하듯, 거센 물과 바람에 맞서 필요한 정주환경을 함께 힘을 합쳐 만들고 가꾼 네덜란드인은 자연과 공존하는 공간조차 적극적인 ‘조성’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공간계획의 전통, 특히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과 소통적 계획(communicative planning)의 모범을 찾기 쉬운 곳이 네덜란드이다. 사실 현지에서는 정작 네덜란드가 더 이상 계획가의 천국이 아니라는 날카로운 평가도 들린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더 나은 과정과 결과를 위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일 것이다. 공공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공공이 집중할 역할과 그 역할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정치·사회·경제·환경적 변화를 인식하고 적응하면서, ‘문제 발견과 연구, 해결책 모색, 대안 검토, 정책 결정, 집행, 평가, 반성, 개선’이라는 정책주기의 반복 속에 교훈을 얻고, 지금 이곳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그리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맥락에서 공공 정책주기의 최첨단에서 있는 공간계획 및 정책, 도시건축 분야의 대표 연구소 ‘네덜란드 정주환경연구소(Plan Bureau voor Leefomgeving: PBL)’를 소개한다.

### PBL의 역할

PBL은 기존 공간계획연구소(Ruimtelijke Planbureau: RPB)와 환경자연연구소(Milieu- en Natuurplanbureau: MNP)의 후신으로 2008년 설립되었다. PBL의 공식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현 국토의 환경·생태적, 공간적 질(quality)를 조사·기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정책들을 평가한다.
- ② 국토의 환경·생태적, 공간적 질에 향후 사회 트렌드가 미칠 영향을 탐구하고, 잠재적 정책 대안들을 사전 검토, 평가한다.

\* ‘Planbureau voor de Leefomgeving’의 직역은 ‘정주환경계획청’이며, 공식 영문명은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이다. 여기서는 그 역할과 취지에 부합하게 ‘정주환경연구소’라 칭한다.



도시와 관련된 정보와 현황을 파악하여  
전달하는 PBL의 인포그래픽  
상 도시별 일자리  
하 도시 내 소득격차  
자료: <http://www.pbl.nl/onderwerpen/ruimtelijke-ontwikkeling/feiten-en-cijfers>

- ③ 국토의 환경·생태적, 공간적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들을 파악하여 의제화한다.
- ④ 환경과 자연, 공간계획 분야에서 정부의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가능한 선택안들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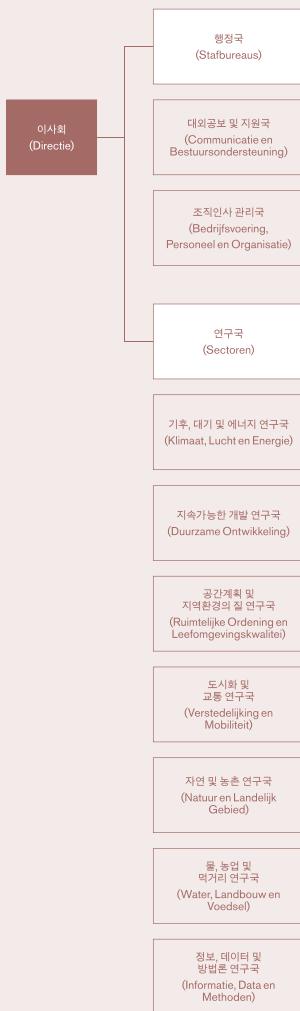
### PBL의 설립 배경

2010년 기반시설환경부 산하가 된 PBL의 출범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져 온 네덜란드의 공간계획 및 주택 정책의 진화와도 관련이 깊다. 1901년 주택 법 발효 시 이미 주택 개발과 도시계획을 법제상 밀접하게 연결하였을 정도로 주택 공급 전략에 도시계획적 고려요소들을 면밀히 반영해 온 네덜란드 정부는 관련 책임을 하나의 부에 부여했고, 이를 1965년부터는 '주택공간계획부'라 칭하였다. 이는 전후 주택난 해소와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큰 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부였다. 1982년부터는 환경관리 책임도 더해져 해당 부는 2010년까지 '주택·공간계획·환경부(Ministerie van Volkshuisvesting, Ruimtelijke Ordening en Milieubeheer: VROM)'로 존재하였다.

1990년대 들어 건설·공급 측 보조금과 도시재생 지원 예산을 본격적으로 폐지하고, 또 중앙정부는 점차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반시설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하는 가운데 2010년에는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중도우파인 자유민주당이 전후 최초로 원내 제1당이 되면서 출범한 1기 름터 내각에서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은 내무부로, 환경 관리와 국토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책임은 기반시설환경부 (Ministerie van Infrastructuur en Milieu)로 이관되었다. 주택 개발 및 건설 관련 예산은 줄어드는 대신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환경 관리 예산은 비교적 큰 것을 반영하는 조직 개편이다.

이 가운데 공공 부문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유럽연합 지침과 더불어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한 결과, 네덜란드 내 주요 공공지식생산기관은 현재 29개가 남아 있다(Koens et al, 2016). 공공지식 생산기관은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면서도 학문적 연구기관과 구별되고,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연구 수요를 충족하는 정부 관련 조직이다. 예를 들어 총리실 산하 왕립기후처(KNMI)와 '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 응용자연과학연구소(TNO), 재단화된 수자원연구소(Deltares), 부서 지위의 교통정책연구국(KiM) 등이 있다. 그중 주무부 직속을 뜻하는 '계획청(planbureau)' 지위로는 현재 PBL과 경제부 산하 '경제정책연구소(Centraal Planbureau: CPB)', 보건복지체육부 산하 '사회문화연구소(Sociaal Cultuurplanbureau: SCP)' 등 세 곳이 있다. 이들은 특별히 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마련된 '계획청에 관한 총리령'을 따른다. 정식 명칭이 '계획청'이라 하여 계획 권한을 지닌 것은 아니다. 계획 권한을 지닌 정부가 그 의사결정 시 참고하거나 정책 수립과 개선에 활용할 만한 분석과 정책 검토, 평가, 예측을 독립 연구소로서 제공한다.

## PBL 조직도



## PBL의 조직 체계와 연구 성향

PBL은 현재 7개의 연구국이 있다. ‘기후와 대기, 에너지’, ‘지속가능한 개발’, ‘공간 계획 및 지역환경의 질’, ‘도시화와 교통’, ‘자연과 농촌’, ‘물과 농업, 먹거리’, ‘정보와 데이터, 방법론’까지 주제별로 편성되어 있다. 또 2개의 행정국이 ‘대외공보 및 지원’과 ‘조직인사 관리’를 담당한다. 200여 명의 직원 중 80%가 연구직이다. 전공은 계획학, 사회학, 도시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생물학, 수학, 농업기술학 등 다양하다. 이는 소속 주제국에만 매이지 않고 연구 질문에 따라 팀을 결성하여 학제 간 협력과 통합 연구를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다.

PBL이 수행하는 연구 과제는 매년 연구계획과 연구소 재정 결산보고서로 그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구 과제는 주로 기반시설환경부 외에도 주거복지 및 주택 개발의 역사, 유럽연합의 영토 상 응집력(territorial cohesion) 강화 등 주제별 필요에 따라 내무부·경제부·외교부 등 다양한 정부 조직으로부터 받고 있다. PBL의 연 수입은 2014년 기준 약 3,020만 유로(약 381 억 원)로 그 규모가 총 29개 공공지식생산기관 중 14위이다.

PBL 초대 원장은 계획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마르턴 하여르(Maarten Hajer) 교수가 맡았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는 <환경담론의 정치학(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Discourse)> (Oxford, 1995)을 집필하고, 이후 <숙의적 정책 분석 –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거버넌스 이해(Deliberative Policy Analysis – Understanding Governance in the Network Society)> (Cambridge, 2003, 공저)를 공동 편찬하였으며, 암스테르담대학교 공공정책학 교수와 2016년 로테르담 국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등을 역임하였다. 현 2대 원장은 틸부르흐대학교 ‘법과 지역 거버넌스 연구소’에서 지역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한스 모마스(Hans Mommaas)이다.

이러한 인선은 공간계획과 공적 지식의 생산에 대한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관점을 반영한다. 즉 공간계획이 사실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문제 정의와 공적 의제화, 해결책 모색과 적용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지식의 객관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가능성 있는 선택지들을 탐색하여 이를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에 비춰 검증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공간계획 정책의 포괄적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 관점에서 공간계획은 정치적 결정에 앞서 그 결정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닦고 넓히는 역할을 하며, 이는 PBL이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 PBL의 주요 연구 주제와 출판물

따라서 PBL 내 7개의 연구국은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며, 빠른 사회 변화 속에 시급한 혁신적 연구 주제들도 심도 있게 다룬다. 먼저 다년에 걸쳐 집중하는 전략적 주제로는 ‘물, 에너지, 먹거리 전략 간 통합과 기회(농촌의 생태다양성과 먹거리, 물관리)’, ‘친환경 순환경제 만들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도시의 미래’, ‘주택시장의 변화와 부동산’, ‘네덜란드의 공간적 불평등(농촌 지역의 과업과 가능성)’, ‘유럽 내 네덜란드 및 도시지역 간 공간적 경쟁력과 경제적 네트워크’ 총 7개

“7개의 연구국은  
빠른 사회 변화  
속에 시급한 혁신적  
연구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며,  
각 주제에 수년 간  
집중하는 장기 연구  
과정에서 매년 크고  
작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가 있다. 각 주제에 수년 간 집중하는 장기 연구 과정에서 매년 크고 작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외에 정기보고서는 네덜란드 전체의 인구학적 공간변화 분석 및 예측, 국토 공간계획 정책 평가 및 전망 등 PBL의 핵심 임무 네 가지에 일차적으로 충실한 보고서를 뜻한다. 그 예로 ‘2016년 전국 도시지역 공간 분석과 함의·편향된 성공(Ruimtelijke Verkenningen 2016: De verdeelde triomf)’, ‘기반시설과 공간 모니터링(Monitor Infrastuur en Ruimte)’, ‘지역별 인구 및 가구구성의 변화 추계(Regionale Bevolkings- en huishoudensprognose)’, ‘국토 에너지 현황(Nationale Energieverkenning)’ 등이 있다. 특히 ‘정주환경 현황(Balanse van de Leefomgeving)’은 PBL이 통계청(CBS) 및 바헤닝언(Wageningen)대학교와 공동 개발해 운영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네덜란드의 자연환경과 공간에 대한 각종 통계와 수치, 700여 개 지표에 대한 값을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학계·언론계에서 접속하여 활용하고 있다.

단기 연구보고서로는 ‘국토 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한 중점 의제 설정 보고서(Omgevingsopgaven voor de Nationale Omgevingsvisie)’, 하원의 의뢰를 받아 CPB 및 SCP가 공동으로 수행한 ‘포괄적 웰빙 개념 정립(Breed welvaartbegrip) 및 삶의 질 측정 지표 개발 보고서’ 등이 있다.

이러한 PBL 연구활동의 부산물로 동료평가를 거쳐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영문 소논문은 2014년 83편, 2015년 47편, 2016년 87편이었다. 즉 PBL 소속 연구원들은 수행한 연구과업과 관련된 학문적·이론적 반추 결과를 학술지 논문 형태로 국제 학계에 활발히 발표하고 있다.

### PBL의 연구성과 관리와 평가

PBL은 연구결과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반시설환경부가 임명해 구성하는 ‘감독위원회’로부터 1년에 최소 세 번 연구활동에 대한 정기 검토를 받는다. 그 외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에 관해 학문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결과를 꾸준히 내놓기 위해 연 단위에 국한되지 않는 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해 매년 갱신하고, 5년마다 외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평가위원회의 방문 감사를 받는다. 내부적으로는 연구팀 간 교류를 위해 내부 세미나를 수시로 열고, 외부 전문가도 초청하여 관련 주제를 토론하는 PBL 자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PBL 연구원의 외부 강연 및 공개 발표, 기고도 장려된다. 또 연구윤리나 학문적 진실성에 대해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내부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보고서 초안에 대해서는 외부 연구자 또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주환경 관련 정보와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대외에 공개, 공유한다.

연구가 실제 정책 결정 및 사회적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평가, 즉 연구성과 평가는 기본적으로 ①장기적으로 다년간 집중하는 전략 주제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와 새로운 발견을 내놓았는지에 대한 정성적 평가, ②상·하원에서 정책에 관한 공개 질의응답과 토의에서 PBL 보고서가 얼마나 인용되었는지에 대

“불확실한  
사회·경제·환경적  
조건에 반응해 한 발 앞서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의 정책과 제도상의  
미비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가능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정량적 평가(2016년 199번), ③온라인 및 신문·라디오·TV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의 PBL보고서 다운로드 및 언급, 보도자료 활용, 보도 횟수에 대한 정량적 평가로 이뤄진다.

### 닫는 말

네덜란드 공간계획의 특징은 ‘통합성’과 ‘정합성’이다. 도시·건축·조경 계획에서 광역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 전략에서 교통·에너지·주거·일자리 등 부문별 정책(sectoral policy)의 목표와 전략이 서로 조화되도록, 부문별 정책 목표가 지닌 공간적 함의를 분석하고 조율하여 그 고려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공간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이 최대한 사업화 단계에 반영되도록 힘써 왔다. 또 ‘토지 용도’와 ‘이해관계자’, 토지 용도를 실현할 ‘재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 간의 합리적 관계 설정도 중요하게 여겨왔다.

이런 ‘통합성’, ‘정합성’이란 특징은 PBL의 조직과 연구활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불확실한 사회·경제·환경적 조건에 반응해 한발 앞서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의 정책과 제도상 미비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에너지 전환’, ‘순환경’, ‘환경과 먹거리’, ‘공간적 불평등’, ‘시민 삶의 질 지표’ 등 중요한 정치적 의제를 먼저 찾아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가능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소·정주환경과 공간계획 분야에서 다른 대학 단위 연구소가 하지 않는 광범위한 기초 연구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또 지자체가 발주하는 연구사업과는 차별되게 중앙 정부 차원의 전략과 대응에 관해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는 공공연구소. 상·하원 논의에서 그 연구결과물이 인용된 횟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BL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Faludi, A. and A. Van Der Valk(1994), *Rule and Order: Dutch Planning Doctrine in the Twentieth Century*,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Koen, L., Chiong Meza, C. Faasse, P. and J. De Jonge(2016), *De publieke kennisorganisaties*, Den Haag, Rathenau instituut.
- Needham, B.(2014), *Dutch Land Use Planning: The Principles and the Practice*, Surrey, Ashgate Publishing Limited.
- Planbureau Leefomgeving(2017), *PBL Jaarverslag 2016*.
- Planbureau Leefomgeving(2016), *PBL Jaarverslag 2015*.
- [www.pbl.nl](http://www.pbl.nl) [Accessed on 29 May 2017].

## INTERVIEW



리즈 판 더르 바우던 박사  
(Dr. Ries van der Wouden)

'도시계획 및 정주환경의 질'  
연구국 책임연구원

“우리 연구국은  
도시계획,  
도시혁신,  
토지정책과 부동산  
개발에 대해  
주력하며, 다른  
연구국과 학제 간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 및 정주환경의 질’ 연구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연구주제는 무엇입니까?

A 지난 수년간 ‘도시계획’, ‘도시혁신’, ‘토지 정책과 부동산 개발’ 세 가지 주제에 주력해 왔습니다. ‘도시계획’의 경우 네덜란드 국토계획, 특히 미래에 어떤 사회·경제적 변화에 국토계획이 대응해야 할지 탐색하는 연구와 지난 국토계획 정책의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평가하는 연구입니다. ‘도시혁신’의 경우 도시공간이 경제 활동과 성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동시에 사회계층 간 격차와 환경, 보건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가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 각 도시 단위가 취한 전략과 그 전략이 효과 있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토지 정책과 부동산 개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지 정책의 효과와 그 토지 정책이 주택·오피스·상업시설 등 부동산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최근에는 업무 및 상업시설의 높은 공실률이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 ‘도시계획 및 정주환경의 질’ 연구국이 수행하는 연구가 네덜란드 내 다른 도시 건축 연구 단위들이 수행하는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A PBL은 경제학자·사회지리학자·도시설계학자·생물학자·기후변화 전문가 등이 함께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에너지, 기후, 주거, 교통, 농업, 환경, 자연환경, 순환경제 등의 주제를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도시계획 및 정주환경의 질’ 연구국은 특히 공간 정책이나 도시계획과 관련해 연구소 내 다른 연구국들의 전문성으로부터 시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제 간 협력이나 전문 분야 간 통합성과 실용성이 특정 분야에 세분화하는 타 연구 단위와 다른 점입니다.

◎ 최근 수행한 연구 중 특히 네덜란드 도시형태(urban morphology)와 도시공간 간 발생하는 상호 영향에 초점을 둔 연구보고서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A PBL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동 단위의 도시공간을 분석하여 맞춤형 계획전략, 도시설계안이나 개발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한 수요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는 연구사업을 통해 채워집니다). 그러나 도시형태, 도시공간의 형성기제, 도시공간 간 역동에 대한 연구결과로 다음을 언급할 수 있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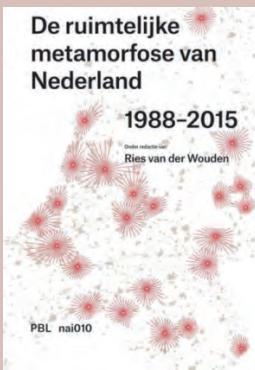
첫째, 요스트 테너케스(Joost Tennekes)와 아르얀 하버스(Arjan Harbers)가 2012년에 수행한 <대규모 또는 소규모 도시화(Grootschalige of kleinschalige verstedelijking)> 연구 보고서입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플랑드르 주,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주택 개발 계획을 비교한 연구로, 각 주거단지의 형태론적 차이와 그런 차이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인들, 주거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2015년에 바로 제가 책임편집인으로서 기획·출간한 <네덜란드의 공간적 변이 1988~2015(De ruimtelijke metamorphose van Nederland 1988~2015)>라는 책입니다. 피넥스(Vinex; 제5차 공간계획추가문건;



**대규모 또는 소규모  
도시화(2012)**

자료: <http://www.pbl.nl/publicaties/2012/grootschalige-of-kleinschalige-verstedelijking>



**네덜란드의 공간적 변이  
1988-2015(2015)**

자료: <http://www.pbl.nl/publicaties/de-ruimtelijke-metamorfose-van-nederland-1988-2015>

1991년 발간) 프로그램(1995~2005년 집행)에 따라 신축된 주거단지, 특히 기존 시가지 재개발과 신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실현된 도시공간의 형태와 변화를 추적하였습니다.

① 마지막으로 연간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주된 연구발주처,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 연간 연구계획 수립 시 우리는 관계된 주요 부처, 즉 기반시설환경부·경제부·내무부의 각 대표들과 논의합니다. 그 대표들이 각 부처 차원에서 중요한 주제, 바라는 연구 질문을 제시하면 우리가 그 의견을 듣고 고려하여 연구계획에 반영 합니다. 연구과업에 따라서는 중앙정부 부처나 때로는 도 정부와 시 정부에서 연구자문위원회를 파견하여 연구설계에 직접 참여합니다. 정책상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 예로 2019년에 발효하는 '국토환경관리법(Omgevingswet)'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공간계획법(Wet ruimtelijke ordening), 지반보호법, 환경관리법, 도로관리법 등 물리적 환경에 관련한 각종 26개 법을 통합해 대체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의도하는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상향식 도시개발의 촉진입니다. 아직까지는 공공이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청사진을 공공이 직접 실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대규모의 공영토지개발을 이제는 점점 더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리는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재정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민간의 상향식 부동산 개발 의향을 도시 전체의 공간 전략에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유기적 도시개발(organische ontwikkeling)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간의 상향식 부동산 개발을 허가해 주다 보면, 당장 그 필지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나 광역 단위로, 또는 도시 전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법제가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즉 국토환경관리법 초안을 검토해 보충·삭제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신규 법제가 그러한 개선 없이 가져오게 될 부작용 등을 실사례 분석에 근거하여 추정·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닐스 소렐(Niels Sorel)과 요스트 테너커스(Joost Tennekes), 마이케 할러(Maaike Galle)가 2014년 발표한 <유기적 도시개발에서의 공적 기반시설 비용 조달(Bekostiging van publieke voorzieningen bij organische gebiedsontwikkeling)>입니다.

이렇듯 부동산개발 행태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공간계획법제를 정비하는 데 PBL이 기여하고 있습니다.